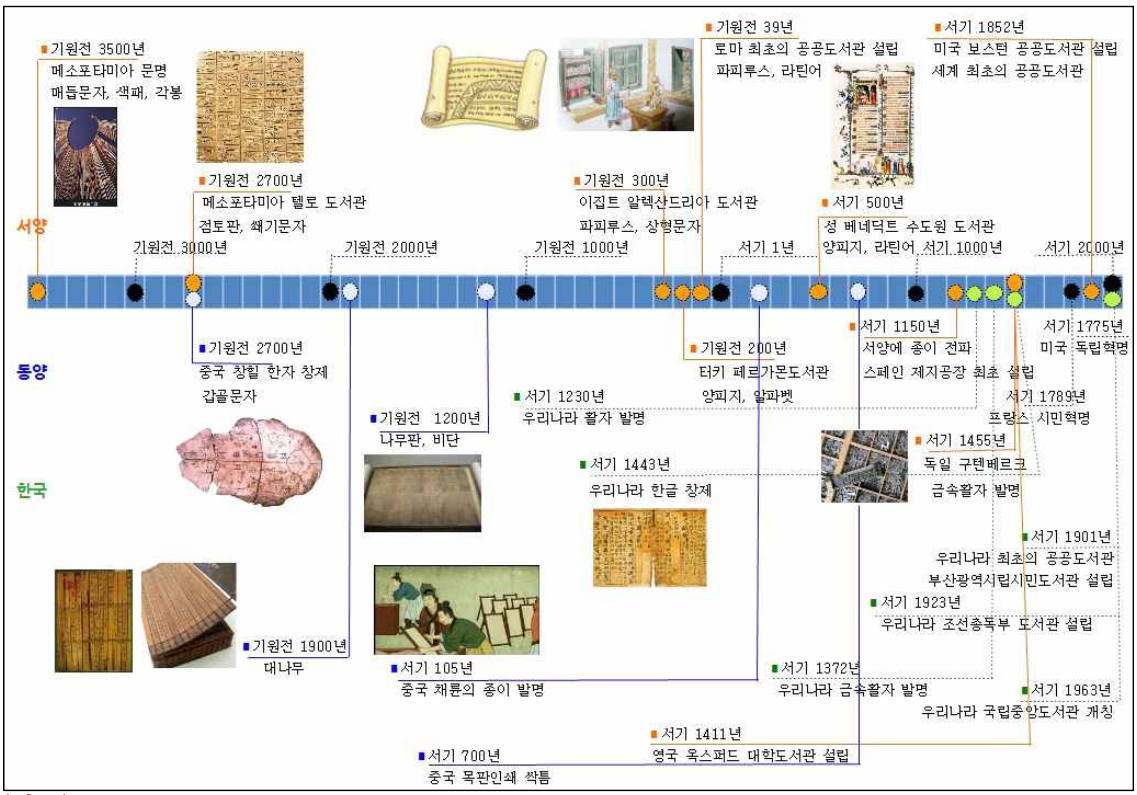
[열려라 도서관_시즌2] 공통2. 도서관과 책의 역사

인류가 종이를 발명하기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점토판, 파피루스, 납판, 양피지를, 동양에서는 대나무, 나무판, 비단 등을 사용했어요.



(연표)

문자를 기록하는 다양한 재료들은 결국 점점 더 글자를 쓰기 편한 것으로, 기록한 내용을 더욱더 오랜 시간동안 보존하기 위해 다양하게 발달되어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발달과 종이의 발명, 책과 도서관의 발달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답니다.

(1) 설형문자 점토판

모든 문자의 기원은 그림에서 시작되며 기원전 6천 년에서 5천 년 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최초의 도서관은 바로 이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2700년경에 만든 텔로 도서관이에요. 이곳에는 3만 개 이상의 점토판이 있었다고 해요. 점토판은 햇빛에 말리거나 불에 구워 그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점토판이 지닌 가장 큰 결점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보관하는 데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 것이었어요.

점토판에는 그림문자처럼 정교하게 새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쐐기(V)모양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의 문자를 쐐기문자 또는 설형문자라고 하죠.

(2) 상형문자와 파피루스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신성문자”로 알려진 상형문자를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가 가장 일반적인 정보기록의 재료로 자리 잡았어요. 파피루스는 지중해 연안의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을 가늘게 찢은 뒤, 엮어 말려서 다시 매끄럽게 하여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3)고대 도서관
고대의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최초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고대 최대 규모였지요.
고대 로마에서는 아시니우스 폴리오에 의해 기원전 39년 공중목욕탕 안에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들어섰지요. 당시 로마사람들에게 목욕탕은 오늘날의 문화센터와 같은 곳이었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파피루스를 사용했어요. 파피루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소장 공간에 지장도 없었죠. 그러나 습기에 매우 약하고, 잘 부서지는 바람에 그 보존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기원전 200년경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페르가몬의 국왕이었던 에우메네스 2세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이집트의 톨레미왕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하였어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가죽의 제조법을 페르가몬에서 개량, 발전시켜 파피루스 대신 널리 사용하게 되었지요.

(4) 양피지의 발달
양피지는 양, 염소, 소 등의 가죽의 표면을 돌로 갈아서 얇고 부드럽게 만든 기록 재료입니다. 양피지는 파피루스의 보존하기 어려운 성질을 해결해 주었어요. 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양면에 모두 기록을 할 수 있는 코덱스형의 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책 한 권을 만드는 데에는 보통 약 15마리의 가축이 필요했고, 2-3년이 걸렸기 때문에 책은 왕, 귀족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정보는 그들만의 것이 되었지요. 양피지는 “종이의 천년 여행”의 기간 동안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꾸준히 활용되었어요.

(5) 채륜과 죽간 & 종이
종이는 중국에서 105년에 채륜이 발명했어요. 채륜은 매일 죽간으로 만든 책을 보아야 하는데, 무척 무겁고 다루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비단이나 마 같은 옷감을 만드는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채륜의 종이는 당나라와 사라센이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에서 전투를 하였을 때, 포로가 된 당나라 군사에 제지 기술자에 의하여 전파되었어요. 종이 만드는 기술은 1150년에 스페인에 처음으로 제지 공장이 세워질 때까지 천년의 여행을 합니다.

(6) 종교도서관
서양에서는 200년 경 로마 제국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종교지도자들이 교회와 수도원 안에 종교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중세 암흑시대에 수도원 도서관은 고대의 문화를 유럽 사회에 전승하고, 현대의 코덱스형의 책의 형태를 보급시킨 공헌을 하고 있어요. 또 고

대의 왕립도서관과 개인도서관을 중세 후반에 탄생하게 되는 대학도서관에 연결시켜 준 공로를 인정받고 있어요.

1411년, 영국의 국왕 헨리 5세의 막내 동생인 험프리공이 개인 장서를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최초의 대학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이후 책이 널리 보급되고 학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학이 세워질 때 마다 도서관도 함께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은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어요.

(7) 금속활자와 르네상스 운동
1455년, 독일의 금세공사인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금속활자의 발명 이후 유럽의 인쇄술은 크게 발달하게 되었어요. 금속 활자는 책을 정확하고 빨리 만들 수 있게 해 주었지요.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많은 책들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끌어내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르네상스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8) 산업혁명의 영향
이후 18세기에 영국에서 공업화라고 부르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책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기 시작했지요. 책의 수가 급증하면서 도서관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특히 영국과 미국은 그들의 앞선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어요. 기원전 17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이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로마시대에도 도서관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도서관의 주인이 왕이나 귀족, 부유한 상인이나 학자 등이었어요. 우리가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종교개혁, 시민사회 등이 나타난 1800년 이후이니 겨우 300여 년 전부터 가능하게 된 일이지요.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빌려 읽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을 배우는 곳이지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보의 바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랍니다.